드라마 끝나도 주몽 감동은 여전히

나주 주몽 세트장 '인산인해'

지난 10일 눈발 속에도 1만여명 발길

체험 프로·연계 관광·편의시설 시급

감동의 드라마는 끝났어도 강력한 여진(餘震)은 계속되고 있었다.

35주 연속 주간 시청률 1위, 마지막 회 시청률 51%를 기록한 MBC 드라마 '주몽'의 종영 이후 맞이한 첫 주말,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영산강변 '주몽' 세트장. 간간이 흩날리는 눈발과 거세게 불어오는 찬 바람에도 드라마의 여운을 느끼려는 1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드라마 시작 이후 7개월 동안 찾은 입장객은 65만 명에 달한다.

총 4만2천 평에 달하는 세트장에는 당시 모습을 재현한 신단·해자 성문·철기제작소·졸본 부여성 등 100여 채의 궁궐과 민가가 들어서 있었다. 특히 대소왕 즉위식 기념 무술대회를 촬영했던 정궁·태자궁·연못궁·신단 등 '동부여성'은 지상 7m 높이에 실내 면적 2천 평의 웅장한 스케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뒤편으로는 넓은 들판을 품고 영산강의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고 있어 관광객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부산에서 산악회 회원들 42명과 함께 온 주부 김정자(48)씨는 "주몽이 눈물을 흘리며 남쪽으로 떠나가는 소서노를 바라보는 장면을 보고 함께 울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감동이 두 배"라고 말했다. 마침 세트장 한 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소서노가 떠나는 장면에 삽입됐던 가수 인순이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연인원 19억 명의 시청자를 TV 앞에 끌어 모았던 주몽의 인기를 업고 나주시는 730억원의 직·간접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직접적인 수입은 ▲임대료·교통비 189억원 ▲배우와 출연진 등이 소비한 4억원 ▲입장료(성인 3천원, 청소년 2천500원)를 포함한 운영수입 15억원 ▲주차장(1천~2천원) 수입 1억2천만원 등 210억원에 이른다.

'주몽' 세트장에 80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조성한 나주시는 소유권을 갖고, MBC는 10년간 무상으로 독점 사용할 예정. 시는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삼한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역사관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원·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해 고구려 역사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세트장 앞 '다야들'에 생태공원과 영산강변 탐방로를 조성하고, 영산강에 황포돛배를 띄워 뱃길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상레저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입장객들이 단지 '보는 관광'에 그치지 않고 고대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접 관광지와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제청소년연합 (IYF) 소속의 아이들 45명과 함께 온 인솔교사 강성심(여·34)씨는 "참여 프로그램도 없고 화면에서 보았던 생동감이 부족했다"며 "당대의 복장을 한 사람들을 배치시켜 입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공간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매점은 3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를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세트장 주변에는 주차장 내 포장마차 6곳만 있고 음식점은 아예 없다.

화순 도곡에서 온 황인철(33)씨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고, 포장마차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말인 지난 10일 나주시 공산면 '주몽' 세트장 찾은 관람객들이 활쏘기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대소왕 즉위식 기념 무술대회를 촬영했던 '동부여성 정궁'.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드라마·영화 세트장 그후…

막대한 예산 들여 대부분 방치

광주·전남지역 내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세트장은 광주 2곳, 전남 7곳 등 모두 9곳이다.

해당 지역 지자체들은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홍보'를 앞세워 세트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보탰다. '사랑과 야망' 세트장의 경우 순천시가 ▲특별교부세 8억원 ▲시 예산 43억원 ▲도 예산 12억원 등 총 63억원을 쏟아부었고, 구미호 외전' 세트장은 광주시 남구청이 16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 세트장은 이후 드라마가 종영되거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면서 방문객 수가 격감했다. '사랑과 야망' 세트장의 경우 당초 유료관람객 수가 하루 1천500명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는 하루 800명에 불과했다.

'구미호 외전' 세트장도 지난 2004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1만6천여 명이 찾는 데 그쳤다. 완도 '해신' 세트장 역시 촬영장 제공 이외의 뚜렷한 계획이 없어 단기적인 이익 창출 모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세트장 중 '사랑과 야망'은 완공 5개월 만에 입구 옹벽이 붕괴돼 부실공사 논란에 휘말렸고, '구미호 외전'은 화재로 일부분이 소실돼 방치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反FTA 시위 과잉진압 논란

경찰, 방패·곤봉 가격 시위자 등 30여명 부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 진압부대와 시위대의 충돌로 부상이 잇따라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시위대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자 앞줄에 선 시위 참가자들을 방패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또 시위 참가자 20여명과 취재기자 8명 등이 진압 부대원들의 발에 밟히고 방패·곤봉 등에 맞아 부상했다. 당시 시위 참가 인원은 2천여명이었으며 각목이나 방패 등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경찰 측에선 전의경 5명과 경찰관 2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모두 귀대·귀가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를 벌인 후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택순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조폭, 돈 없으면 대출 받게해 갈취

광주 북동 상인들 피해

알몸·문신 보이며 협박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라'

광주시 북구 북동 일대 호프집 등 일부 영세 업소는 최근 몇 달 사이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온갖 시달림을 당했다. 조직 폭력배 P(43)씨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호프집·광고사 등을 돌며 '보호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P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업소에서 밤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팬티만 입은 채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주인들을 협박하기 일쑤였다. 광고업을 하는 정모(55)씨는 숙소에까지 불려가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P씨는 "돈이 없다"는 정씨에게 새마을금고 두 곳에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등 5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갈취해갔다. 이 같은 협박에 시달린 업소만도 10여 곳에 달한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P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경태 前 구례군수

내주 검찰 소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수억원대의 업무추진비를 불법조성한 뒤 편법으로 사용한 전경태 전 구례군수를 내주 중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전 군수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구례군 6급 공무원 A씨가 전 군수 재임시절인 2003년 초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7개 차명 계좌를 통해 4억9천여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조성,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차명계좌로 전 전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불법 조성한 구례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는 13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경찰 대책회의 비웃 듯

광주에 또 편의점 강도

경찰이 편의점 강도 예방을 위해 업주들과 대책회의를 가진지 48시간도 안돼 편의점 강도사건이 또 발생했다.

11일 새벽 4시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F편의점에 30대 남성이 침입, 흉기로 종업원 정모(18)군을 위협하고 현금 51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정군은 "키 170㎝ 정도 되는 남자가 담배를 사려는 척하다 갑자기 윗옷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업원의 진술과 편의점 CCTV에 찍힌 동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편의점·노래방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CCTV 설치 확대 ▲자위 방범체제 구축 ▲업소와 경찰 간 직통전화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었다.

/정상필기자 camus@

나원참 〈7074〉 김종두

20대 무면허 뺑소니 사고

광주 서부경찰은 11일 교통사고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김모(27)씨를 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장 40대 휴대전화 훔치다 '덜미'

쌍나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PC방에서 휴대전화 절도를 위해 여장을 하면서까지 완전범죄(?)를 꿈꾸다가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1)씨는 11일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모(28)씨가 화장실을 가는 사이 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으나, 이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종업원에게 붙잡혔다는 것.

○…막노동을 하는 이씨는 여장을 한 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주 여자 옷을 입었다"고 횡설수설.

/정상필기자 camus@